

‘생명공학의 해 대체로운 행사 개최

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생명공학연구원, 과학문화재단,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매월 한번씩 생명공학주간(Bio Week)으로 정해 생명공학 관련이벤트를 집중 실시한다. 그 일환으로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바이오축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생명공학 학술회의’가, 10월엔 대덕밸리벤처연합회가 주관하는 ‘대덕바이오벤처 주간’이 열리며 이때 기술교류회, 설명회 외에, 생명공학연구원을 일반에 개방한다. 이밖에 오는 11월엔 해외 생명공학 석학을 초청하는 주간으로 설정해 노벨상 수상자 등 유명 석학을 초청할 계획이고 연말에는 한해를 결산하는 ‘바이오의 해’ 결산대회를 마련하여 올해의 생명공학자 선정과 연구성과를 전시한다.

**제5회 전자파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 개최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회장 박동철)는 7월 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이 후원한 가운데 제5회 전자파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년에 이어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영향과 관련된 국외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과 국내 연구내용이 발표되어 올 한해 동안 이루어진 연



구내용과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와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환경친화형 SM(styrene monomer) 생산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손재익)은 (주)제이오 및 LG석유화학(주)과 공동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스타이렌 모노머를 생산하는 새로운 환경친화형 공정시스템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5개 연구팀이 약 5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종합한 것으로 하루에 약 2백50kg의 스타이렌 모노머를 생산할 수 있는 Pilot Plant를 건설하여 연속운전을 함으로써 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국내에는 연간 약 2백50만톤의 스타이렌 모노머 생산시설이 있는데, 이 기술을 채택하였을 경우 에너지절약이 기대된다.

**연구용 원자로 이용 세계 최초 홀뮴-166
간암 치료제 신약 상품화 성공
한국원자력연구소·동화약품(주)**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동화약품(주) 연구팀에 의해 간암을 수술하지 않고 방사성동위원소 주사제로 치료하는 새로운 간암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 상품화되어 곧 시판될 예정이다. 이 신약은 방사성동위원소 홀뮴-166과 천연의 키토산 고분자물질의 착화합물 형태로 이루어진 간암 치료제이다. 이 치료제를 주사침을 통해 주입하여 직접 간암 환부에 투입하면 짧은 시간내 간암 세포만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식으로 상품명은 ‘미리칸주’로 명명하였다. 이 간암 치료제의 특성은 일반 항암 치료제와는 달리 약물을 직접 간암병소에 주입하여 그 곳에 머물게 함으로써 주위의 정상조직에는 방사선의 영향이 거의 없도록 하며 홀뮴-166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1회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여 일종의 외과수술의 한 대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회장 류관희)는 학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기념식, 심포지엄,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기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홍보영화의 제작, '한국농업기계학회 25년사' 및 「한국농기구도감」의 출판, 그리고 '21세기의 농업의 기계화와 자동화 방향' 및 '남북한 농업기계화사업 협력'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1회 분자생물다양성 및 생물정보학 워크숍 공동개최 생명공학연구원·한국동물분류학회

생명공학연구원(원장 복성해)과 한국동물분류학회(회장 박규택)는 공동으로 비교유전체학을 중심으로 한 분자생물다양성의 방법들을 참가자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제1회 분자생물다양성 및 생물정보학 워크숍을 7월23일부터 5일간 생명공학연구원과 대전 보건의대에서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분자생물다양성과 생물정보학 심포지엄 등 2개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국내 관련분야 전문가 9명이 연사로 나와 현재 국내의 연구경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강사들의 지도하에 직접 분자생물학과 관련한 실험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일본·중국의 주요 과학관과 협력기반 구축마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승구)은 7월 10일 일본 동경 국립과학박물관, 현대산업과학관과 13일에는 중국 북경의 국립과학기술관과 협력의정서를 체결

했다.

이번 협력의정서 체결은 지난해 9월 오스트리아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이어 두번째로, 국립중앙과학관이 세계적인 주요 과학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선진국과의 협력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협력내용은 전시관의 운영, 선진전시기법 도입 전수, 전시 교육 프로그램 교환, 전문인력 교류 및 국제적 공동 연구 등이 포함됐다.

플라즈마 반응기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원장 황해웅) 열유체환경연구부 송영훈박사팀은 7월 4일 산업용 플라즈마·촉매 탈질공정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플라즈마 반응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 환경당국 및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98년부터 23억원을 투입하여 SK, 범아정밀과 공동으로 이동형 배출원에 적용될 수 있는 차세대 탈질공정기술인 플라즈마 촉매 탈질공정을 개발하는데 성공, 암모니아 탈질촉매 및 설비를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차세대 광통신 핵심부품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오길록)은 폴리머광소자팀(팀장 이명현박사)이 고속, 대용량의 정보 전송 및 교환이 가능하며 차세대 광통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폴리머16X16 AWG라우터' 기술을 개발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광라우터는 광통신의 핵심기능인 광다중화, 광역다중화 및 광스위칭의 기능을 단위소자로 구현할 수 있는 집적화된 광소자기술로 광전송과 광교환기에 두루 사용된다. ④7